

건축사 구보씨, 길을 잃다

Architect Mr. Gubo, got lost



구만열 | Ku, Man-yeol, KIRA
(주)건축사사무소 한복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 위원

답답한 하루하루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니 우리 건축사들은 구조안전확인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다. 글로벌 시대는 맞다. 리만 형제의 미 은행 부도로 세계경제에 쇼크가 오더니 하던 프로젝트는 가 버리고 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건축사사무소가 독식하다시피 하는 일감은 이제 아주 씨가 말랐다. 구보 씨, 작은 건축사사무소를 업으로 하는 아름다운 꿈이 있는 건축사다. 건축설계가 생계의 수단이며 삶의 즐거움이다. 허나 십 수 년 전부터 건축설계업계 판의 흐름은 크게 달라졌다.

세계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면서 건축설계업에도 변화가 왔다.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량의 건축사를 허용했고, 대다수의 큰 프로젝트는 턱이라는 형태로 발주되다 보니 기존 큰 규모 사무실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룡처럼 부풀어 오르며 설계 업계를 바꾸어 놓았다.

중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점차 시들어 갔다.

큰 사무실은 과연 무슨 경쟁력이 있어 그 많은 일을 수행하고, 모 사무실은 코스닥에 등록까지 하여 자신의 몸집과 이익을 뽐내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프로젝트에 간택되기 위하여 외국사와 연계하여 디자인을 가져오기도 하고 전국적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가 하면, 직원들은 일이 많아 실시설계를 의주관리 하여 실제로 디테일 도면을 그려보지 않는 다고도 한다. 가히 철저한 분업과 효율을 가진 비즈니스 집단이다. 경제적이지만 비문화적이고 경쟁에 강한 모습이지만 물염치하며, 독점 천민자본주의를 닮았다. 정글 속 강력한 사냥꾼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강력한 사냥꾼들은 많은 일과 인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성을 쌓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료 사무실의 일감을 독식한 결과 프로젝트 수행을 바탕으로 커야 하는 많은 건축사들의 일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적법한 자본주의 체계에서 용인된 방법으로 생긴 일 일지라도.

자본주의 속성이 경쟁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한다.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요즘은 공정사회란 말이 이슈화 되고 있지만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건축설계업계나 세상을 보면 구보씨 마냥 답답하다.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실감, 점점 편중되어가는 일감, 20대 80사회, 진입장벽...

지금의 현실은 모든 건축사사무소가 같이 경쟁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대형사의 조직력과 자금력, 업무추진력은 그렇지 못한 사무실에게는 넘지 못할 장벽이 된 상황으로까지 왔다. 모든 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수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이미 불공정한 게임이 되어 버렸다. 이 불공정한 게임에 조정자의 손길이 필요한 절대 절명의 순간이다.

질박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 건축문화 산업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건축설계업계를 보아야할 것 인가?

건축은 문화고 이야기고 도시에 사람을 끌어 들이는 자석이다.

구보씨 수년전 유럽여행 중 바르셀로나를 가보고 도시에서 건축물의 위상, 건축가 가우디란 브랜드를 보고 감동했었다. 게리가 빌바오를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되살렸듯이... 이러한 건축물을 디자인 한 거장들은 큰 조직에서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갖고 담고 만들고 또 좋은 프로젝트를 받고 하는 좋은 흐름 속에서 탄생되었다.

건축사 구보씨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만 희망을 가슴에 품는다. 건축설계 흐름의 기준이 되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견과 신예 그룹의 건축사들이 자신의 기량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규모 이하의 프로젝트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해 본다. 가우디 도시 바르셀로나에서는 아직도 그가 성당을 지어가고 있다. 이러한 거장을 우리도 갖고 싶다. 건축사 구보씨 정글에서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희망은 한줄기 햇빛처럼 빛난다.

도종환 시인의 시구가 가슴에 사무친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